

단 원 명	8. 문장의 구조	
단원 내용	<p>이번 단원에서는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문장의 구조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문장 안에서 ‘주어-서술어’ 또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이어야 올바른 문장이 완성될 수 있어요. 주어는 문장에서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목적어는 문장에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서술어는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장 성분을 잘 이해하고 문장 성분과 호응 관계에 대해 알아 본 후 읽은 책에 대한 소감을 써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거예요.</p>	
성취 기준 (주요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장 성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2.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책에 대한 소감을 쓸 수 있다. 4.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쓸 수 있다. 	
평가 유형	주요 평가 계획	
	구술평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본답니다.
	관찰평가	글을 읽고 각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는지와 자신이 쓴 글에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은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고,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본답니다.
	지필평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책에 대한 소감을 쓸 수 있는지와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본답니다.
평가 대비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장 안에서 앞에 어떤 말이 나오면 뒤에 적절한 말로 대응시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하며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2.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주어에 호응이 이루어지는 서술어를 넣거나 서술어에 호응이 이루어지는 주어를 넣어 문장을 바르게 쓰세요. 3. 꾸며 주는 말인 ‘결코’, ‘전혀’, ‘별로’는 ‘아니다’, ‘없다’, ‘아니하다’, ‘못하다’ 등과 같이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이 이루어진답니다. 4. 글에서 호응 관계가 어색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문장 성분을 파악하여 어떤 성분끼리의 호응이 어색하지 살펴보고 알맞게 고쳐 쓰면 된답니다. 	

단원명	8. 문장의 구조	차시	2~3	평가일	년 월 일
과제명	문장 성분에 대해 알고 어울리는 문장 만들기			평가자	(인)

활동 과제

※ 문장 성분의 역할을 생각하며 보기의 낱말을 사용하여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1~2)

<보기>

자다, 물을, 엄마가, 청소를, 사자가, 동생이, 마시다
웃는다, 마음이, 손을, 나무를, 하다, 깨끗하다, 기쁘다

-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다음의 문장을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써 봅시다. (3~5)

- 어제 책을 읽으려고 하였는데,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전혀 있었어.
⇒ _____
- 나는 공원에 갔었는데 숲 속에는 다람쥐와 새가 지저귀고 있었어.
⇒ _____
- 나는 여행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해서 계속 집에 있었어.
⇒ _____

단 원 명	8. 문장의 구조		
평가 과제	• 문장 성분에 대해 알고 어울리는 문장 만들기		
평가 영역	문법	평가 유형	지필 평가
평가 시기	6월 1주	평가 대상	개인
준 비 물	• 평가지 • 필기구		
평가 관점	• 이번 평가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 알고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와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본답니다.		
평가 기준	평 가 기 준		
	잘함	문장 성분에 대해 알고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쓸 수 있어요.	
	보통	문장 성분에 대해 알고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 수 있으나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는 능력이 미흡해요.	
	노력요함	문장 성분에 대해 알지 못해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지 못하며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는 능력이 미흡해요.	
답안 작성의 유의점	• 문장 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뜻을 생각하고 답을 적도록 하며, 주어에 호응이 이루어지는 서술어를 넣거나 서술어에 호응이 이루어지는 주어를 넣어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예시 답안	1. 예 사자가 잔다, 동생이 웃는다. 마음이 기쁘다. 등 2. 예 엄마가 청소를 한다, 동생이 물을 마신다, 등 3. 예 어제 책을 읽으려고 하었는데,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전혀 없었어. 4. 예 나는 공원에 갔었는데 숲 속에는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새가 지저귀고 있었어. 5. 예 나는 여행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집에 있었어.		